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1. 1.(화) 11:30	배포 일시	2022. 11. 1.(화)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 손호영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 홍승범(044-203-4042)

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및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

- 통상교섭본부장, 「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」 긴급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이창양)는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**로 11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이하 'KOTRA')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·자동차·정유·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**「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」를 개최**하였다.

○ 이번 회의는 **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**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, **수출활력 제고,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**하기 위해 **긴급하게 마련**하였다.

<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>

◇ (일시·장소) '22.11.1(화), 11:30~13:00,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(서울 종로구)

◇ (참석) (정부) 통상교섭본부장, 무역정책관, 수출입과·업종과 과장 등
(기관) KOTRA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한국산업연합포럼
(업종협회) 반도체, 자동차, 조선, 철강, 석유화학, 기계 등 12개 업종별 협회

◇ (안건) ①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(산업부), ②업종별 수출 전망 및 건의사항(업종별 협회)

□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"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10월에는 **전년대비 5.7% 감소로 전환**"되었음을 언급하며,

* 수출증감률 추이(전년동기비, %) : ('20년) △5.5, ('21년) 25.7, ('22.1Q) 18.4, (2Q) 13.0, (3Q) 6.0, (10월) △5.7

○ “**10월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**,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,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**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**”이라고 진단하였다.

□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IMF* 등 국제기구에서 경기둔화와 **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**를 표하며,

* ‘22년 IMF 경제전망(7월 → 10월 발표, %) : (세계) 3.2 → 3.2, (미국) 2.3 → 1.6, (중국) 3.3 → 3.2

○ “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**최근 무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**하고 있으며, 가용한 **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**”임을 강조했다.

○ 안 본부장은 “지난 8.31일 발표한 **「수출경쟁력 강화 전략」을 차질 없이 이행**하는 한편, ‘수출현장지원단’과 ‘수출상황실’을 통해 접수된 **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**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**지속적으로 해소**해 나갈 것”이라고 언급했다.

□ 또한, “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, **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**하는 한편, 에너지 위기가 **우리 경제·산업이 저소비·고효율 구조로 전환**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정부는 **세제, R&D 등 인센티브를 확대**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%를 차지하는 **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**해 나갈 것이며,

○ 국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중요한 동계 **적정 실내온도 유지, 난방사용 자제 등**에 대해서도 **대국민 홍보·캠페인을 적극 강화**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참석한 **업종별 협회**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**주요국들**의 **긴축정책 기조**가 계속되는 가운데, **글로벌 경기둔화**와 그에 따른 **수요 약화** 등으로 **연말까지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**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,

○ 물류·마케팅·세제·금융 등 **업종별 맞춤형 지원**과 함께,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**수출 리스크 요인**에 대한 **적극적인 대응**을 정부에 요청하였다.

* 주요 건의사항 : 인력·마케팅 등 해외 진출 지원(반도체 등),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(철강), 외국인력 도입 지원(조선), 수입관세 인하 추진(석유·油化 등), 수입규제 대응 지원(기계) 등

○ KOTRA·무역보험공사 등 **유관기관**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**수출**이 **다시 증가세로 전환**될 수 있도록 **무역금융·마케팅** 등 **지원책**을 **적극적으로 강구**하는 한편, '수출상황실' 등을 통해 접수되는 **현장애로**의 **신속한 해소** 등 **총력 지원**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안 본부장은 민관이 **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**하여 현 상황을 극복해나갈 **원동력**을 **모색**해 나가자며, 우리 수출이 **이른 시일 내 증가세**를 **회복**할 수 있도록 **민간**에서도 **주도적으로 노력해 달라**고 당부하는 한편,

○ 정부는 「**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**(10.27일, 대통령 주재)」의 **후속조치**로서 **범부처 차원**의 **수출지원역량**을 강화하여 **신성장 수출동력 육성**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- 우선, **부처별**로 **산업진흥·수출지원 전담체계**를 **구축·강화**하는 한편, **부처별 수출전략·지원계획**을 **수립**하고 「**무역투자전략회의**」를 통해 이행 현황 등을 **관리**해 나갈 계획이며,

- KOTRA·**무보** 등 **수출지원기관**을 통해 전부처 산하기관의 **수출지원역량**을 **강화**하고 **수출지원기관간 협력체계**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개요**

1. 회의 개요

□ **(일시/장소)** '22.11.1일(火) 11:30~13:00(**오찬포함**) / 무보 11층 대회의실

□ **(참석) 통상교섭본부장**(주재), 주요 업종협회, 수출입 유관기관 등

○ **(정부)** 본부장, 무역정책관, 수출입과장·자동차과장·철강세라믹과장 등

○ **(업계)** 반도체·자동차·油化·석유 등 12개 업종 협회*

* 업종 : 반도체·자동차·석유·油化·기계·전자·디스플레이·철강·섬유·조선·바이오·이차전지

○ **(기관)** KOTRA, 무역보험공사, 산업연합포럼 등

□ **(내용)** ①업종별 **연말까지의 수출여건·전망**과 **수출활력 제고방안**
②**수출**에 **병목현상**을 **유발**하는 **현장애로 해소**

2. 세부 프로그램(안)

시 간	세부 내용	비 고
11:30~11:33 ('03)	▸ 모두 발언	**통상교섭본부장**
11:33~11:38 ('05)	▸ 수출입 동향과 수출감소·무역적자 원인	수출입과장
11:38~12:18 ('40)	▸ 업종별 수출여건·전망 및 애로·건의사항	업 계
12:18~12:58 ('40)	▸ 토론(기관별 수출지원방안, 애로·건의 답변 포함)	-
12:58~13:00 ('02)	▸ 마무리 발언	**통상교섭본부장**

※ 모두 발언까지 공개